

성서에 나타난 여인상



본문 : 누가복음 10 : 38-42

오늘 얘기는 주로 복음서에 나타난 여인들에 대한 예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 본 뒤 문에 뜻을 두기로 하겠다.

현대 여성 운동의 위치에서 볼 때 성서는 여성관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다. 성서의 여성관은 그 당시로 소급, 그 주변에서 여성이 어떻게 취급되었고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보면서 이해해야지 오늘과 직결시켜 보면 그 본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즉 예수 당시의 주변이라 할 수 있는 희랍세계와 예수 자신이 나서 활동한 유대사회에서 여성을 어떻게 취급했고, 보았는지 봐야 할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본다면 예수를 통해 여성의 위치나 평가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희랍의 격언으로 『나쁜 무지한 자가 아니고, 여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는 말이 있다. 무지한 자와 여인과 노예가 공동으로 취급 되었다.

『창기는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첩은 우리의 몸차림을 위해서, 아내는 아이를 말아 기르고,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에 필요하다』와 같은 이용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여성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것은 뱀에게 독을 더 배게하는 것과 같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 이유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질투가 많은 동물이기 때문이다』라는 심한 평도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면 예수당시에 있는 얘기를 골라보자.

『아들을 가진 것은 축복이고 딸을 가진 것은 저주다』 『얼까지 불상사가 생겼다면 그 중 아들은 여인들 때문이다』 『차라리, 율법책을 태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인에게 전수(傳授)해서는 안된다』

한걸음 더 나가 신명기 24장 1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오』라고 되어 있다. 여기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두 파가 갈렸다. 한 파는 간음 현행범으로만 제한을 한데 비해 힐레엘이라는 비교적 개혁파에 속하는 일파에서는 남자를 기쁘게 못하는 것은 다 포함시켜 이혼하게 해 놓았다.

그 당시 여성은 참 종교적이고 종교를 위해 바쳤지만 종교는 결코 여성의 편에 서지 않았다. 유대학자 람비는 거리에서 여성과 마주서면 안 되고 여인을 제자로 삼는 법이 없었다. 주변에 여인을 갖는다는 것은 창피한 것으로 안 시대인데, 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여인에 대한 기록이 많다. 복음서를 쓴 기자들마저도 여자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데 매어 있었다.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께서 5천명을 먹였는데 대해서도 남자만 5천명이라고 기록한다. 아이들과 여인은 사람속에 안든다는 견해다. 이런 견해를 가진

제자들이 예수가 여인들과 상대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은 아마 본래보다도 많이 축소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봐야겠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혈유병 든 여인의 얘기, 나인성의 과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예수의 일을 숨어서 뒷받침했던 익명의 여인들, 예수의 최후를 기름으로 장식한 익명의 여인, 그래서 복음과 더불어 여인의 일을 전하라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것도 여인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증인도 여인들로서 처음과 나중에 여인으로 장식했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볼때 굉장히 창피한 기록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는 증거이다.

최근에 성서 연구 특히 사회학적인 연구 방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수가 상대한 화제의 내용이 농부 노동자가 많다는 것에 특색이 있지만, 여인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떡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빚는 여인의 심정,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심정, 돈한푼을 잃고 등불을 켜고 찾으려는 여인의 심정,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일같이 재판장 집 앞에서 밤낮을 새우며 마침내 그를 설득하는 여인의 심정, 과부의 열전에 나타난 심정 등 여인의 심정이나 행동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재래적인 남존여비 사상을 구약성서에서 찾는 전통을 가져 왔다. 창세기 2장에 여인은 아담을 위해서 그를 채우고 그의 갈빗때에서 났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와같은 기록이 창세기 1장에도 있다. 1장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되」라고 되어 있다. 신약에 와서 예수는 이 두 가지 전승중 1장의 것만을 채택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 창세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로 나타나고 있다.

유대사회는 예수당시만해도 일부다처제가 허용됐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시정한 것은 그리스도교다. 예수가 일부일처제를 사회문제로 내세운 것은 없지만 예수의 남녀를 동등한 인간 위

치에 올려 놓은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10장이다. 이 말씀은 『이혼을 해도 괜찮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되어 있다. 재산정도에 따라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남자칭호의 시대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 예수는 『태초에 남녀를 창조하시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함으로써 일부일처제의 기본을 뚜렷하게 밝혔다. 따라서 창세설화 2장의 컴플렉스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는 소설, 그림 등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마르다가 예수를 맞아들이는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반면 마리아는 영접했다는 말도없고 한마디 말하는것도 없고 조용히 예수의 발아래 앉아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갖고 여성은 마리아적(的)이 되어야 하느냐 마르다적이 되어야 하느냐의 전통적 해석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마르다는 사회참여에 열심이 있는 여인상이다. 사리보다는 행동하는 여인상, 현대개념으로 사회 사업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리아는 여인답게 시종드는 여성, 기도하고 명상하는 여인상으로서 남자들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옳다고 주장해 왔다. 현대여성들은 그 반대로 마르다상이 옳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여인상을 둘로 갈라놓는 것, 그리고 마리아가 옳다고 예수가 얘기한 것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가 마르다를 책망한 것은 한군데도 없다. 예수 자신은 마르다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마르다는 자기의 하는 일에 매여 그것을 절대화했다는 것이 문제다. 마르다가 활동한 것은 스승을 대접하는데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일 자체에 매어서 마리아도, 아니 그 주인공 예수마저도 자기 일을 위해서 존 재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이에 대해 마리아는 전혀 동적이 없으나 마리아는 그 스승의 말씀에 절대 복종했고 마리아는 중대한 어떤 것을 인식

한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에 언제나 그랬을 수는 없다.

이들중 어느 것이 옳으나를 알기 위해 예수의
관점을 검토해 보자.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마
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격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많지 않다. 다
한 하나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는 말했다. 필요한 것은 하나
뿐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사본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다. 무엇이
부족한가? 마리아는 부족한 것 바로 그것을 대
변하고 있다.

우선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는 마르
다를 책망하면서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고 마
리아가 잘 했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것
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 두 타입을 다 인정한다
는 것이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 오늘 초점은 거
기에 있다.

마리아를 조용하게 명상하고 성서나 읽고 들
어 앉아 있는 타입, 마르다는 활동하는 타입의
둘로 이들을 성격화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르
다는 일상성(日常性)의 상징이고 마리아는 비상
성(非常性)의 상징이다. 일상성은 가장 현실적
이다. 마르다는 그것 이상 없다고 자부하고 있
다.

비상한 때는 일상성을 중단하는 것이 상례(常
例)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문제는 때에 대한 인식이다. 누가복음의
문맥으로 봐서 예수는 수난길에 오르는 때에 여
기 들렀다. 다시는 못 올 마지막 때이다. 그런
때 마르다는 그의 말을 엿들으려 하지 않고 늘
있는 경우처럼 그것을 전제하고 이미 있는 일상
적인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
때의 예수를 잊어 버렸다는 것이 하나 있어 버
린 중요한 것이다. 여기 대해 마리아는 일상성
을 다 제거하고 이때의 예수에게 일어나는 일에
총 집중한다. 바로 이것이 옳은 것을 선택했다
는 이유이다.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인격의 두 분신(分身)으로 봐야 한

다. 시대에 따라 생기는 분신이다. 우리에게겐 일
상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엔 비상성이 있다.
이럴때는 일상성을 깨야한다. 마리아는 평소에
는 마르다이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비상시에는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마르다는 언제나
마르다로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다. 언제나
일상성에 매어 있는 것이 마르다의 결함이다.

이를 놓고 Y의 일을 생각해 보자.

Y의 프로그램은 고정된 순서로 진행된다.
또 그래야만 한다. Y가 하는 일의 내용은 다채
롭고 그래서 분주하다. 이걸 모두 필요하다. 일
상성, 그것은 우리에게서 뺄 수 없다. 이것은
마르다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없을 위험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지 않
나하는 것이다. 일상성에 매임으로써 처음의 목
적을 잊어 버리지 않나 하는 것이다.

Y목적마저 잊고 일상성에 매어 기계처럼 들
아간다. 그래서 만레리즘에 빠져 버린다. 어제
와 같이 오늘도, 작년과 같이 금년도, 또 내년
도 똑같은 영원한 것이 계속돼갈 것을 전제로
진행해 가는 일상성에서 기본적인 본래 뜻을 잊
어 버리고 만다.

이때가 어느 때에 있는가를 의식할 때 끝끝내
마르다로 고정돼 나가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
는 현재 한국의 현장에서 어느시대 어느 순간에
서 있는가를 의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식할
때 Y일상성이 이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우리는 인권이 극도로 유린되어 어쩌면
완전 전체체제로 될 위기 앞에 있다. 많은 양심
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운
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 일에만 분
주하는 동안에 내가 모시는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 채 영원히 그를 잃어버릴 것이
다.

Y는 착한 마르다다. 그러나 비상시를 아는
마르다도 될 수 있어야 한다. 비상한 때 일상성
을 끊고 급 전환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갈 수 있
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멋에 돌아가는 단
체가 되고 만다. 특히 여성은 일상성에 매이기
쉽기 때문에 예수가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는 여

있다. 제리안은 예수님의 제자의 기쁨을 누리는 간접적인 연결점이 있다. 마지막 순간 아무도 이해를 못할 때 예수가 어느 운병에 가는 지 알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기고 맑은 역사 한 마디도 안했다. 나를 알아 주는 건 너뿐이라는 예수의 태도를 문맥으로 뚜렷이 볼 수 있다. 여기 대해 제자는 마리아에게 그 기름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고 그럴듯한 정의로운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일상적 사고의 함의이다. 이에 예수는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일상성).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비상성). 이럴 때 역시 일상성의 논리를 구상할 것인가.

이 비상한 때를 알고 행한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고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다. (마가 14장). 일상성을 깨고 자기가 가진 정력을 총 집중, 한 곳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기동력을 여성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전달되었다.

바로 이 여인이 십자가의 사건과 새로운 미래가 열린 부활사건의 증인이 되었다.

* *

YM·YW 사회개발 요원훈련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YM·YWCA 사회개발 요원훈련이 3월 17(월)~20일(목)까지 수원의 「내일을 위한 집」에서 열린다.

YMCA 25명 YWCA 10명이 모여 갖는 훈련에서는 사회발전을 위한 자아확립의 과제(문동환박사: 한국신학대학), 중간집단의 사명과 역할(강원통박사: 크리스찬 아카데미)이란 강의를 듣고 ① 자료중심, ② 활동평가 위한 사례중심 ③ 과제탐색및 정립, ④ 과제정립및 전략모색 ⑤ 전략모색및 협력방안 ⑥ 과제정리에 관한 과제연구를 갖는다.

회장·총무 연수회

지방 Y 회장, 총무를 위한 연수회가 3월 27(목)~29일(토)까지 버들캠프장에서 열린다.

회장, 총무로서 가져야 할 사무훈련과 대인관계 훈련을 위해 인간관계 훈련(문희석박사: 장로회 신학대학) 사무훈련 위삼, 프로그램계획에 관한 위삼이 있고 세계여성의 해를 맞은 Y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세계여성의 해와 한국여성운동」이란 강연과 성경연구(문희석박사)를 통한 Y의 목적을 다시 한번 연구한다.